

## 열왕기하 9장의 “하살롬”

김유기\*

### 1. 들어가며

열왕기하 9장은 예후의 정변을 다룬다. 예후는 기원전 9세기에 이스라엘 군대 사령관으로 길르앗 라못에서 시리아(아람) 군대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그 싸움에서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가서 몸을 추스르고 있었다. 그때 엘리사가 보낸 예언자가 길르앗 라못에 있던 예후를 찾아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 예후는 군사들을 모아 요람이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로 진격해 온다. 아무것도 모르는 요람은 예후를 맞이하러 나가지만 예후는 요람을 죽인다. 요람 왕을 찾아왔던 유다의 아하시야 왕도 예후의 명령에 따라 죽음을 맞는다. 예후는 요람의 어머니 이세벨을 찾아가고 이세벨은 당당하게 예후에 맞서지만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이 급박한 이야기 가운데 세 장면에서 다섯 번에 걸쳐 “하살롬(חֲשַׁלְוֹם)”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하살롬”은 ‘온전함’, ‘평화’, ‘안전’ 등을 뜻하는 ‘살롬(שָׁלוֹם)’에 의문표지 ‘하-(-ה)’가 결합된 형태이다. 이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예후가 다른 사령관들과 함께 있는 장면이다. 엘리사가 보낸 예언자가 다른 사령관들과 함께 있는 예후를 불러내어 골방으로 데려간다. 거기

\* 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근동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부교수. [ykim@swu.ac.kr](mailto:ykim@swu.ac.kr). 이 논문은 2021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 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2021-0077).

서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아합의 집안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다음 도망간다. 예후는 사령관들에게로 돌아온다. 사령관들은 “하살롬”이라고 말하고, 이어서 예후에게 예언자가 왜 왔는지 묻는다(11절). 다음으로 이 표현이 등장하는 곳은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요람 왕이 기마병을 두 차례 보내는 장면이다. 요람이 보낸 첫 기마병이 요람의 명령대로 예후에게 “하살롬”이라고 말하고(18절), 두 번째 기마병 역시 예후에게 “하살롬”이라는 말을 전한다(19절). 두 기마병이 모두 돌아오지 않자 마침내 요람 왕이 직접 예후를 만나러 나가 “하살롬”이라고 말한다(22절). 이 표현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곳은 예후가 이세벨을 만나는 장면이다. 이세벨은 예후를 보자 “하살롬”이라는 말로 예후를 맞이한다(31절). 이 장에서 “하살롬”은 모두 예후에게 하는 말이지만 말하는 사람이나 상황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논문에서는 “하살롬”이라는 발화가 예후의 정변 이야기 가운데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살피면서 각각의 상황에서 이 표현을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아보려 한다. 먼저, “하살롬”이 일부 고대 번역본과 현대 번역본에서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를 살핀다. 다음으로, “하살롬”은 판정 의문문이므로 성서 히브리어에서 판정 의문문과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떤 형태를 띠는지 살펴보고 이를 한국어의 판정 의문문과 비교한다. 또한 “하살롬”은 인사말로 쓰이기 때문에 한국어 인사말의 쓰임새와 비교해 본다. 그런 다음 열왕기하 9장에 나오는 “하살롬”의 기능을 중심으로 번역의 방향을 제시한다.

## 2. 열왕기하 9장에 나오는 “하살롬”과 그 번역

### 2.1. 히브리어 원문

아래의 (1)-(5)는 열왕기하 9장에서 “하살롬”이 등장하는 대화이다. 여기에 제시되는 한국어 번역에서는 “하살롬”을 음역 그대로 쓴다.

(1) 왕하 9:11 (장군들 → 예후)

השלום מדוע בא־המשגע הזה אליך  
אתם ידעתם את־האיש ואת־שיחו

가: 하살롬? 그 망나니가 장군한테 왜 왔습니까?

나: 장군들이 그 사람 알잖아요. 그 사람이 떠들어 대는 것도요.

(2) 왕하 9:18 (기마병 1 → 예후)

כה־אמר המלך השלום  
מה־לך ולשלום סב אל־אחרי

가: 임금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살롬?”  
나: 너랑 살롬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기수를 돌려 내 뒤로 오너라.

(3) 왕하 9:19 (기마병 2 → 예후)

כה־אמר המלך שלום  
מה־לך ולשלום סב אל־אחרי

가: 임금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롬?”  
나: 너랑 살롬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기수를 돌려 내 뒤로 오너라.

(4) 왕하 9:22 (요람 → 예후)

השלום יהוא  
מה השלום עד־זנוני איזבל אמך וכשפיה הרבים

가: 하살롬, 예후?  
나: 하살롬이 뭐니까? 임금님의 어머니 이세벨이 음란한 일과 마술  
을 해 대고 있는데요.

(5) 왕하 9:31-32 (이세벨 → 예후)

השלום זמרי הרג אדניו  
מי אתי מי

가: 하살롬, 시므리, 제 주인을 죽인 자?  
나: 내 편이 누구냐? 누구냐?

위의 (1), (4), (5)에서는 “하살롬”이라는 표현으로 대화가 시작된다. (2)와 (3)에서는 기마병이 요람 임금의 말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2)에서는 “하살롬”이고 (3)에서는 “살롬”이다. (2)에는 의문표지 ‘하-’가 붙어 있고 (3)에는 의문표지가 붙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의문표지가 없더라도 의문표지가 있는 경우와 의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sup>1)</sup> 더군다나 (2)와 (3)의 질문에

1) 성서 히브리어 판정 의문문에 반드시 의문표지가 붙을 필요는 없다. H. G. Mitchell, “The Omission of the Interrogative Particle”, R. F. Harper, F. Brown, and G. F. Moore, eds., *Old Testament and Semitic Studies in Memory of William Rainey Harper*, vol. 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08), 128에 따르면 구약성서에 실제로 의문표지가 생략된 직접 의문문이 22번 나온다고 한다. C. H. J. van der Merwe, J. A. Naudé, and J. H. Kroeze, *A Biblical Hebrew Reference Grammar*, 2nd ed. (London: T&T Clark, 2017), 473은 의문표지가 붙은 판정 의문문은 의문표지가 없는 판정 의문문과 의미론적으로나 화용론적으로 차이가

대한 예후의 대답이 정확히 일치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의문표지가 붙지 않은 (3)의 “살롬”에 (2)의 “하살롬”과 다른 의미나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2.2. 고대 번역본

칠십인역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하살롬”을 하나같이 “에이 에이레네(εἰ εἰρήνη)”로 옮긴다. 칠십인역은 다른 곳에서도 “살롬”을 거의 늘 “에이레네(εἰρήνη)”로 옮기고 있으며, 칠십인역에 나오는 “에이레네”는 거의 대부분 히브리어 “살롬”의 번역어이다.<sup>2)</sup> 히브리어의 의문표지 ‘하-’와 ‘살롬’을 그리스어의 의문표지 ‘에이(εἰ)’와 명사 ‘에이레네(εἰρήνη)’로 기계적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칠십인역이 히브리어 “하살롬”의 기능과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알기 어렵다.

불가타는 열왕기하 9장에 나오는 “하살롬”을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하고 있다. 라틴어 번역은 (1)-(5)의 질문에 나오는 “하살롬”을 각각 (6 ①-⑤)와 같이 옮긴다.

### (6) 불가타의 “하살롬” 번역 (왕하 9장)

- ① *rectene sunt omnia* (11절) (모든 것이 좋습니까?)
- ② *pacata sunt omnia* (18절) (모든 것이 평화로우나?)
- ③ *num pax est* (19절) (평화가 있겠느냐?)
- ④ *pax est (Hieu)* (22절) (평화가 있는가, 예후?)
- ⑤ *numquid pax esse potest (Zamri)* (31절) (도대체 시므리에게 평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

위의 (6 ③-⑤)에서는 ‘평화’를 뜻하는 *pax*라는 명사를 사용했으며 (6 ②)에서는 ‘평화로운’을 뜻하는 형용사 *pacata*가 나온다. 그렇지만 (6 ①)에서는 ‘옳게’, ‘잘’ 등의 뜻을 지니는 부사 *recte*가 등장한다. ‘살롬’의 주요한 의미인 ‘온전함’, ‘잘 지냄’의 뜻을 살려 옮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6 ⑤)는 (6 ①-④)와는 달리 “도대체 평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뜻을 지니는 수사의문문으로 옮긴다. 이처럼 불가타는 “하살롬”을 형식에 맞추어 옮기는 대

없는 것 같다고 한다.

2) F. J. Stendebach, “שָׁלוֹם *šālôm*”, *TDOT*, vol. 15, 20; E. Hatch and H. A. Redpath,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and Other Greek Versions of the Old Testament*, 2nd ed. (Grand Rapids: Baker, 1998), 401-402.

신 ‘평화’의 의미를 살리면서 문맥에 맞추어 자유롭게 옮긴다.

불가타는 “하살롬” 번역의 두 가지 가능성을 보여 준다. 첫째는 ‘평화’라는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는 것이고, 둘째는 ‘온전함’, ‘잘 지냄’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경향은 현대 번역본들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 2.3. 현대 서양어 번역본

불가타에서 나타난 두 경향은 영어 번역에서도 이어진다. 몇몇 영어 번역은 “하살롬”을 아래의 (7)과 같이 옮긴다.

(7) 영어 성서의 “하살롬” 번역 (왕하 9장)

	ESV	KJV	NAB	NAS
11절	b1	b1	b1	b1
18절	a1	a1	b3	a1
19절	a1	a1	b3	a1
22절	a1	a1	b3	a1
31절	a1	a4	b1	b2
	NIV	NJB	NRS	TNK
11절	b3	b1	b3	b1
18절	a2	b1	a1	b1
19절	a2	b1	a1	b1
22절	a3	b1	a1	b1
31절	a3	b4	a1	b2

- (a1) Is it peace
- (a2) Do you come in peace
- (a3) Have you come in peace
- (a4) *Had* Zimri peace
- (b1) Is all well
- (b2) Is it well
- (b3) Is everything all right
- (b4) How did Zimri get on

(7 a1-a4)는 ‘peace’를 포함하여 옮기고 있으며 (7 b1-b4)는 ‘peace’ 없이 ‘well’이나 ‘all right’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31절을 옮길 때 KJV와 NJB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한다. KJV는 이세벨의 말 전체를 “*Had Zimri peace, who*

slew his master?”라는 질문으로 옮긴다. NJB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How did Zimri get on after killing his master?”로 옮긴다. 두 번역 모두 “시므리”를 호격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의 (6 ⑤)에 나오는 불가타의 번역과 닮아 있다. 독일어 번역인 ZB 역시 이와 비슷하게 “Wie geht es Simri, dem Mörder seines Herrn?”으로 옮긴다.

위에서 살펴본 영어 번역본은 “하살롬”을 번역할 때 때로는 평화에 관련된 질문으로, 때로는 잘 지내는지를 묻는 말로 옮긴다. NAB, NJB, TNK가 ‘peace’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ESV, KJV, NAS, NIV, NRS는 대부분 ‘peace’를 번역어로 사용한다.

독일어 성서를 보면, ‘Friede’(평화)는 LB와 ZB에서 18, 19, 22절에 나오고 ELB에서는 11, 18, 19, 22절에 나온다. EIN에서는 18, 19, 22절에서 ‘friedlich’(평화로운)라는 형용사가 나온다. EIN은 이 구절들에서 “in friedlicher Absicht kommen”(평화로운 의도를 가지고 오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프랑스어 성서를 보면, NEG와 TOB는 11절의 “하살롬”만을 인사말로 옮기고 있으며 나머지 네 곳은 모두 ‘paix’(평화)를 사용하여 “Est-ce la paix?”로 옮기고 있으며 BFC는 다섯 곳에 등장하는 “하살롬”을 옮기면서 ‘평화’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안부를 묻는 말로 옮긴다. 이처럼 프랑스어 성서에도 ‘평화’를 번역어로 사용하는 번역본과 그렇지 않은 번역본이 있다. 전반적으로 여기서 살펴본 현대 서양어 번역본 가운데에는 ‘평화’를 번역어로 사용하는 번역본이 훨씬 많다.

## 2.4. 한국어 번역본

한국어 성서 역시 “하살롬”을 다양한 방식으로 옮긴다.

### (8) 한국어 성서의 “하살롬” 번역 (왕하 9장)

	『개역개정』	『새번역』
11절	평안하나	좋은 소식이었소
18절	평안하나	평화의 소식이냐고
19절	평안하나	평화의 소식이냐고
22절	평안하나	평화의 소식이오
31절	평안하나	그게 평화냐

	『공동개정』	『성경』
11절	좋은 일이었소	괜찮소
18절	무슨 일이 있소	평안하시냐고
19절	무슨 일이 있소	평안하시냐고
22절	잘 되어 가오	평안하오
31절	그래 일이 잘 되었느냐	평안하냐

『개역개정』은 “하살롬”을 일관되게 “평안하냐”라는 안부를 묻는 질문으로 옮기고 있다.

『새번역』은 사령관들의 질문(11절)에 나오는 “살롬”을 “좋은 소식”으로 옮긴다.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를 데리고 갔다가 예후 혼자 돌아온 상황에서 예후가 어떤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번역한 것 같다. 요람왕의 질문(18, 19, 22절)은 모두 “평화의 소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요람이 전장으로부터 오는 소식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한 것 같다. 이세벨의 질문(31절)을 번역할 때에는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수사 의문문으로 번역함으로써 예후의 행동을 질책하는 의미를 살렸다.

『공동개정』은 다른 한국어 번역과 달리 ‘평화’나 ‘평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일’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11, 18, 19, 31절). “하살롬”을 일이 잘 되었는지, 좋은 일인지, 무슨 일인지 묻는 의문문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물론 31절의 “그래 일이 잘 되었느냐”는 “상전을 죽인 역적 지뜨리 놈아”라는 표현에 바로 뒤이어 나오므로 실제로 일이 잘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예후를 비난하고 조소하는 수사적 질문이다.

『성경』은 『개역개정』과 마찬가지로 “평안”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령관들이 말하는 11절만 “괜찮소”로 옮기고 있다. 이 번역은 엘리사가 보낸 예언자가 예후를 데려갔던 것에 관해 사령관들이 예후를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 주는 번역이다.

열왕기하 9장에 나오는 “살롬”을 번역하면서 한국어 성서는 대체로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인사말로 옮긴다. 『새번역』만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전반적으로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질문을 하고 있으며 『개역개정』과 『성경』은 좀 더 일반적인 인사말을 사용하고 있다.

### 3. 판정 의문문과 그 대답

“하살롬”은 생김새로 볼 때 ‘살롬’ 앞에 의문표지가 결합된 판정 의문문의 형태를 띠고 있다. 먼저 성서 히브리어 판정 의문문이 포함된 대화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피고 한국어의 판정 의문문과 비교함으로써 두 언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 3.1. 판정 의문문

의문문에는 긍정이나 부정으로 대답할 수 있는 판정(判定) 의문문, 의문사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정보의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說明) 의문문,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명제에 대해 화자의 강한 긍정을 표현하는 수사(修辭) 의문문이 있다.<sup>3)</sup> “하살롬”은 의문사 없이 의문표지 ‘하-’를 사용하는 질문이므로 설명 의문문은 아니고 판정 의문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판정 의문문이나 설명 의문문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제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주장을 강화하는 수사 의문문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하살롬”이 수사 의문문으로 쓰이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 3.2. 성서 히브리어의 판정 의문문

성서 히브리어에서 판정 의문문은 평서문 앞에 ‘하-(-ה)’를 붙임으로써 만든다. ‘하-’는 독립된 단어로는 사용되지 않고 주로 문장의 첫 단어 앞에 붙여서 쓴다. 판정 의문문에서 ‘하-’가 생략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글말에서는 평서문과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의문문을 발화하는 경우에는 ‘하-’가 붙어 있는 의문문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억양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4)</sup>

판정 의문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할 때에는 주로 의문문에 나오는 첫 단어를 반복한다.<sup>5)</sup> 아래의 (9)에서는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리브가에게 질문한다. 여기서 맨 앞에 붙은 의문표지 ‘하-’는 이 문장이 판정 의문문임을 분명히 드러내 준다.

3) 남기섭, 고영근, 『표준 국어문법론』, 제4판 (서울: 박이정, 2014), 357-358.

4) L. Hawley, “Linguistic Markers of Polar Interrogatives in Biblical Hebrew”, *Hebrew Studies* 56 (2015), 19-21.

5) 판정 의문문에 대한 대답으로 첫 단어만을 반복하는 예로, 창 27:24; 29:5; 삿 13:11; 삼상 23:11-12; 삼하 2:20; 12:19; 20:17; 왕상 13:14; 왕하 4:26; 10:15; 렘 37:17; 학 2:13을 보라.



## (9) 창 24:58

התלכי עם-האיש הזה אלך

“너 이 사람하고 같이 가려느냐?” “네, 가겠습니다.”

오빠와 어머니의 질문에 리브가는 אלך(‘제가 가겠습니다’)으로 답한다. 한국어의 ‘예’나 영어의 ‘yes’와 같은 감탄사는 나오지 않는다. 단순히 ‘할락(הלך)’ 동사의 미완료 1인칭 단수형으로 대답한다. 질문의 첫 단어, 즉 의문표지 ‘하-’가 붙어 있는 단어는 ‘할락’의 미완료 2인칭 여성 단수형인데 답을 할 때에는 이 동사를 사용하면서 인칭만 상황에 맞게 바꾼 것이다. 이와 같이 성서 히브리어에서는 관정 의문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할 때 흔히 의문문의 첫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물론, 때로는 첫 단어보다 더 많은 부분을 반복하기도 하고 질문 전체를 반복하기도 한다. 첫 단어가 동사나 대명사일 때에는 상황에 맞는 형태로 고쳐서 답하며, 명사일 때에는 그대로 사용한다. 과거에 문법학자들은 대답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질문 가운데 특별히 강조되는 단어라고 생각했지만,<sup>6)</sup> 최근의 학자들은 이런 대답이 단순히 질문의 첫 단어를 반복하는 것이며 이 첫 단어를 빼고 문장의 나머지 부분은 생략되는 것으로 이해한다.<sup>7)</sup> 예를 들어, 신시아 밀러(Cynthia L. Miller)는 이렇게 전통적인 견해를 반박한다. ‘질문의 일부나 전체를 대답에서 반복하는 것은 긍정적인 답을 표현하는 일상적인 방법일 뿐이다. 힘을 주거나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sup>8)</sup>

관정 의문문에 부정적으로 대답할 때에는 (10)처럼 “로(לא)”라고 짧게 답할 수 있다.

## (10) 학 2:12

הן שא-איש בשר-קדש בכנף בגדו ונגע בכנפו אל-הלחם ואל-הנויד ואל-היין ואל-שמן

ואל-כל-מאכל היקדש ויענו הכהנים ויאמרו לא

“만일 어떤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자기 옷자락으로 싸서 들고 가다가 빵이든 국이든 포도주든 기름이든 어떤 음식에든 닿았다고

6) 예를 들어, GKC, § 150 n은 성서 히브리어 관정 의문문의 긍정적 대답은 ‘라틴어에서처럼, 흔히 질문에서 강조된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또는 2인칭을 1인칭으로 바꾸기도 하면서) 표현된다’라고 한다. P. Joüon, *Grammaire de l’Hébreu biblique*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96), § 161 l 역시 긍정적 대답에서는 ‘질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단순히 반복한다’라고 한다.

7) 대답에서 반복되는 첫 단어의 성격에 대한 논의로, Y.-k. Kim, “Responses to Polar Questions in Biblical Hebrew”, *Revue biblique* 126 (2019), 345-346을 참고하라.

8) C. L. Miller, “Linguistics”, B. T. Arnold and H. G. M. Williamson, eds.,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Historical Book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5), 660.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거룩해지겠습니까?” 그러자 그 제사장들이 대답했다. “아니요.”

그렇다면 성서 히브리어의 판정 의문문에 대한 부정적인 대답에는, 긍정적인 대답과 달리, 부정을 뜻하는 감탄사가 사용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레네 란데(Irene Lande)는 이러한 대답을 부정의 감탄사가 아니라 부정어로 본다. 다시 말해, 이 대답은 기본적으로 동사 앞에 부정어를 붙인 것이고, 동사와 그에 따르는 모든 것이 생략되면서 부정어만 남아서 부정의 대답이 되었다는 것이다.<sup>9)</sup> 같은 맥락에서 김동혁은 부정어 ‘로’가 영어의 ‘no’에 해당하는 감탄사가 아니라 대답에서 생략된 서술어를 부정하는 부정어 ‘not’에 상응한다고 설명한다.<sup>10)</sup> 따라서 성서 히브리어 판정 의문문의 대답은 긍정이든 부정이든 질문을 반복하면서 흔히 첫 단어 외에 모든 것을 생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히브리어 판정 의문문과 그 대답을 고려한다면 “하살롬”이라는 질문이나 “하살롬”으로 시작하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으로 기대되는 것은 “살롬”이다. 예를 들어 아래의 (11)에서 엘리사는 자기를 만나러 오는 수넴 여자에게 게하시를 보내서 안부를 묻게 한다. “하살롬”을 세 번 사용하여 여자를 포함한 일가족 세 사람의 안부를 묻는데 여기에 대해 여자는 짤막하게 한 차례 “살롬”이라고 답한다.

(11) 왕하 4:26 (게하시 → 수넴 여자)

שלום לך השלום לאישך השלום לילד ותאמר שלום:

가: 마님은 잘 지내십니까? 어르신은 잘 지내십니까? 아이는 잘 지내니까?

나: 네.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하살롬”으로 시작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살롬”으로 나온다.<sup>11)</sup> “하살롬”에 대한 부정적인 대답으로 “로”나 “로 살롬”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 그 대신에 의도적으로 다른 말을 하거나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열왕기하 9장에서 예후는 다섯 번의 질문에 대해 한 번도 “살롬”이라 대답하지 않는다.

9) I. Lande, *Formelhafte Wendungen der Umgangssprache im Alten Testament* (Leiden: Brill, 1949), 65.

10) D.-H. Kim, “לֹא and the Biblical Hebrew Negative Response”, *Vetus Testamentum* 68 (2018), 405-408.

11) 창 29:6; 43:27-28; 삼상 16:4-5; 왕상 2:13-14; 왕하 5:21-22.

### 3.3. 성서 히브리어와 비교한 한국어의 판정 의문문

한국어의 판정 의문문은 서술어에 붙는 어미로 평서문과 구분된다. 설명 의문문은 의문사가 있다는 점에서 판정 의문문과 구분되지만, 판정 의문문과 같은 어미가 붙는다.<sup>12)</sup> 의문문에 붙는 어미는 상대 높임법의 등급에 따라 ‘-냐’, ‘-는가’, ‘-나’, ‘-(으)오’, ‘-(으)니까’ 등의 다양한 형태를 띤다.

한국어에서 판정 의문문에 대해 답할 때에는 흔히 감탄사를 사용한다. 긍정적으로 답할 때에는 ‘응’, ‘네’, ‘예’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부정적으로 답할 때에는 ‘아니’를 사용한다. 여기에 보조사 ‘-요’를 붙여서 두루높임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 외에 부정의 판단을 표현하는 감탄사는 없다.<sup>13)</sup>

에케하르트 쾨니히(Ekkehard König)와 페터 지문트(Peter Siemund)는 세계의 언어를 판정 의문문에 답하는 방식에 따라 ‘예/아니오 체계(yes/no systems)’, ‘찬성/반대 체계(agree/disagree systems)’, ‘반복 체계(echo systems)’로 분류한다.<sup>14)</sup> 이 분류에 따르면 영어는 ‘예/아니오 체계’이며 한국어는 ‘찬성/반대 체계’이며 히브리어는 ‘반복 체계’이다. ‘예/아니오 체계’와 ‘찬성/반대 체계’는 부정 의문문에 대답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긴 하지만 두 체계 모두 ‘예’나 ‘아니오’라는 감탄사를 사용한다.<sup>15)</sup> 그러나 ‘반복 체계’ 언어에서는 판정 의문문에 답할 때 질문의 일부를 반복한다. 물론 판정 의문문에 답하는 방식을 이렇게 셋으로 분명히 나누어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한국어에서 판정 의문문에 답할 때에 ‘반복 체계’를 사용하여 답하기도 한다.

#### (12) 판정 의문문에 대한 짧은 긍정적 대답

가: 지금 밖에 많이 춥니?

나: ㄱ. 응.

ㄴ. 맞아. / 사실이야.

ㄷ. 추워.

12) 성서 히브리어에서 의문표지 ‘-하’는 판정 의문문에는 붙지만 설명 의문문에는 붙지 않는다. 중세 국어나 경상도 방언에서는 판정 의문문에 붙는 어미와 설명 의문문에 붙는 어미가 다르지만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는 두 종류의 의문문에 같은 어미를 사용한다. 남기심, 고영근, 『표준 국어문법론』, 358.

13) 이필영, “국어의 응답 표현에 대한 연구”, 『텍스트언어학』 6 (1999), 103-104는 한국어에 응답어로만 기능하는 감탄사 가운데 긍정적인 응답어는 ‘응’, ‘네’, ‘예’, ‘암’, ‘아무렴’ 등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 데 반해 부정적인 응답어는 ‘아니’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14) E. König and P. Siemund, “Speech Act Distinctions in Grammar”, T. Shopen,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2nd ed., vol. 1, *Clause Structure*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320-322.

15) 이 두 체계의 차이에 관해서는 D.-H. Kim, “כִּן as ‘Yes’ and כִּן as ‘No’”, *Vetus Testamentum* 70 (2020), 363-365를 보라.

ㄹ. 응. 추위.

위의 (12 가)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사람은 짧게 긍정적으로 답할 때 (12 가-ㄹ) 중 하나로 답할 수 있다.<sup>16)</sup> 각각의 대답은 맥락에 따라 다른 화용론적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질문 명제의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성서 히브리어도 판정 의문문에 대해 질문의 첫 단어를 반복하는 방식으로만 답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대답은 대답하는 사람의 태도나 상황을 드러낸다.<sup>17)</sup>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 다양한 대답 가운데 한국어의 ‘예’에 해당하는 표현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원문에서 질문의 내용을 반복하는 긍정 대답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에는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을 위해 ‘예’나 ‘응’ 등의 감탄사를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하살롬”이라는 말에 “살롬”이라고 답할 때에도 이 답을 “예”로 옮길 수 있다. 그런데 열왕기하 9장에서는 “살롬”이라는 대답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곳에 쓰인 “하살롬”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일까?

## 4. “하살롬”과 그 대답의 기능

### 4.1. 인사말로 사용된 “하살롬”

성서 히브리어 ‘살롬’은 ‘평화’를 뜻하기도 하지만 그 기본 의미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보다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온전한 상태를 가리킨다.<sup>18)</sup> 이러한 뜻을 지니는 추상 명사 ‘살롬’에 의문표지를 덧붙이면 상대

16) 장경희, “판정 질문에 대한 긍정과 부정”, 『한국어 의미학』 7 (2000), 151-153은 한국어에서 판정 의문문에 대해 답하는 방식을 “직접 긍정”과 “간접 긍정”으로 나누는데, “직접 긍정”에는 (12 가)처럼 감탄사를 사용하거나 (12 나)처럼 명제 내용이 사실임을 진술하거나 (12 다)처럼 명제 내용을 반복하거나 (12 라)처럼 두 가지 방식을 섞어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다고 한다.

17) 성서 히브리어 판정 의문문에 대답하는 다양한 방식과 거기에서 드러나는 응답자의 태도에 관한 연구로 Y.-k. Kim, “Responses to Polar Questions in Biblical Hebrew”, 344-359를 보라.

18) HALOT, 1507은 명사 ‘살롬’이, ‘온전하게 남아 있다’(to remain intact) 또는 ‘건강하다’(to be in good health)라는 뜻을 지닌 동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면서 그 기본적인 의미를 ‘완전함’(completeness) 또는 ‘온전함’(intactness)으로 보는 일반적인 견해를 지지한다. 여러 섹어에서 이 어근의 의미를 살핀 W. Eisenbeis, *Die Wurzel שלם im Alten Testament*, BZAW 113 (Berlin: de Gruyter, 1969), 50 역시 섹어에서 이 어근의 기본 의미를 ‘온전함의 개념’(die Vorstellung der Ganzheit)으로 파악한다. F. J. Stendebach, “שלם šālôm”, 15-20은 이 단어의 기본 의미에 대한 여러 견해를 소개하면서 결론적으로 ‘온전함’(intactness), ‘완전

방이나 제3자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지내는지 묻는 질문이 된다. 즉, “하살롬”은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인사말로 기능한다. 화자는 청자에게 “하살롬”이라는 판정 의문문을 사용하여 질문하고 청자는 질문의 첫 단어인 “살롬”을 반복함으로써 대답한다.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화자는 청자의 안부를 묻고 청자는 거기에 답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살롬”은 정보를 묻는 질문이 아니다. 구약성서의 대화에서 이 질문은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를 시작할 때에 나온다. 또한 이 질문에 부정어를 사용하여 답하는 경우는 없다. 즉, “하살롬”이라고 질문할 때 “로”라고 대답하지는 않는다. 더 나아가 청자의 상황이 ‘살롬’이 아닌 경우에도 부정적으로 답하지 않는다. 위의 (11)에 나오는, 게하시가 전한 엘리사의 질문과 그에 대한 수넴 여자의 답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사실 수넴 여자는 자신의 아이가 갑자기 죽은 상황에서 엘리사를 찾아온 것이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여자에게 엘리사의 말을 전한다. 그것은 “하살롬”이라는 표현을 세 번 반복하면서 여자와 남편과 아이의 안부를 묻는 인사말이다. 여기에 대해 여자는 “살롬”이라고 짧게 답한다.<sup>19)</sup> 엘리사를 간절히 만나고 싶은 여자는 게하시와 이야기를 주고받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여자는 나중에 엘리사를 만나고 나서야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다(왕하 4:28). 이런 맥락에서 여자가 게하시에게 짤막하게 “살롬”이라고 말한 것은 대화를 짧게 끝내려는 형식적인 대답이었을 수 있다.<sup>20)</sup>

사무엘상 16:4-5에 나오는 베들레헬의 원로들과 사무엘 사이의 대화는 조금 다르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새로운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을 품고 베들레헬을 찾는다. 사울이 왕으로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도시의 평온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엄청난 계획이었다. 베들레헬의 원로들은 떨면서 나와 사무엘을 맞이하면서 “살롬 보에카(בואו שלום)”(예언자님이

함’(wholeness), ‘잘 지냄’(well-being)의 개념과 연결된 것으로 본다.

19) 앞서 이 여자는 아이의 죽음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엘리사에게 다녀오겠다고 말한다. 남편은 특별한 날도 아닌데 엘리사를 찾아가겠다는 이유를 묻는데 이 질문에 여자는 “살롬”이라고 답한다(왕하 4:23). “하살롬”이라는 질문이 없는데도 “살롬”이라 답하는 점이 흥미롭다. 여기서도 여자는 남편의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답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개역개정』이 이곳의 “살롬”을 “평안을 비나이다”로 번역한 것은 어색하다.

20) I. Lande, *Formelhafte Wendungen der Umgangssprache im Alten Testament*, 5는 이런 점을 인정하면서도 질문이 인사말로 굳어진 표현이라 “살롬” 외에는 거의 다른 답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어떤 경우든 여자의 답은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례에 따른 형식적인 표현이다.

오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라고 묻는다.<sup>21)</sup> 여기서 “살롬”은 서술어로 쓰였다. 원로들은 사무엘의 방문이 ‘살롬’을 깨뜨리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다(삼상 16:4). 그런데도 사무엘은 자신의 계획을 숨기고 원로들에게 “살롬”이라고 말한 다음,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라고 둘러댄다(삼상 16:5). 사무엘상 16:4와 같이 주어가 뒤따라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하살롬”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흔히 사용되는 인사말이다.

## 4.2. 열왕기하 9장의 “하살롬”

열왕기하 9장에 다섯 번 나오는 “하살롬”이라는 질문은 화자는 다르지만 청자는 언제나 예후이다.<sup>22)</sup> 이 질문에 대한 예후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온다. 그런데 “살롬”이라는 대답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예후는 18, 19, 22절에서 “살롬”이라 대답하는 대신 다른 말을 하고 있다.<sup>23)</sup> 반면 11절과 31절에서는 “하살롬”이라고 한 사람에게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다.<sup>24)</sup>

### 4.2.1. 열왕기하 9:11

지휘관들과 함께 있던 예후는 엘리사의 제자를 따라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때 지휘관들 가운데 누군가가 “하살롬”이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 지휘관들이 ‘평화’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을 것 같지는 않다. 모르드카이 코건(Mordechai Cogan)과 하임 타드모르(Hayim Tadmor)는

21) 여기서 의문표지 ‘하-’가 쓰이지 않았지만 문맥에서 볼 때 의문문이 아니라고 볼 근거는 없다. 밧세바가 아도니야에게 했던 질문, “הַשְׁלוֹם בָּאֵךְ”(하살롬 보에카)(왕상 2:13)와 비교해 보라.

22) 17절을 요람 왕이 기마병에게 지시하면서 예후한테 “하살롬”이라고 말하라고 한 것까지 포함하면 여섯 번 나온다.

23) 이와 같이 둘러서 답하는 예를 삼하 18:29, 32에서 찾을 수 있다. 29절에서 다윗은 아히마아스에게 לַשְׁלוֹם לְנַעַר לַאֲבִישׁוֹן이라고 말하며 압살롬의 안부를 묻는데 아히마아스는 자기가 떠나올 때 뭔가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한다. 32절에서도 다윗은 לַשְׁלוֹם לְנַעַר לַאֲבִישׁוֹן이라고 같은 질문을 하는데 구스 사람은 다윗의 원수가 압살롬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둘러서 말함으로써 압살롬의 죽음을 알린다. 그러나 다윗의 질문은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인사말이 아니라 제3자의 안부를 묻는 질문이라는 점에서 왕하 9장에 나오는 기마병들의 “하살롬”과는 차이가 있다.

24) 이처럼 “하살롬”에 대해 답을 하지 않는 경우는 구약성서에서 삼하 20:9에 나오는 요압과 아마사의 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요압은 아마사에게 “하살롬”이라고 다정하게 인사하는 척하면서 그를 칼로 찔러 죽인다. 요압은 아마사가 “살롬”이라고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아마사를 죽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하 18:28에서는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에게 “살롬”이라고 인사한 다음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승리의 소식을 전한다.

갑자기 출현한 예언자 때문에 예후의 동료들이 예후에게 그 예언자가 뭔가 좋은 전조(前兆)를 가지고 왔는지 묻는다고 본다.<sup>25)</sup>

여기서 “하살롬”은 정보를 묻는 질문보다는 형식적인 인사말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더구나 바로 이어서 ‘그 망나니가 장군한테 왜 왔습니까?’라고 묻는다는 점을 보면 이 표현은 인사말로 보는 것이 낫다. 만약 정보를 묻는 질문이었다면 질문한 사람은 예후가 답하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인사말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릴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예언자가 온 이유가 몹시 궁금했던 사령관이 형식적인 인사말을 건네고 나서 바로 이어서 질문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살롬”은 질문이 아니라 질문에 앞서 형식적으로 내뱉은 인사말이다.

#### 4.2.2. 열왕기하 9:18, 19, 22

요람 왕이 보낸 기마병들은 왕의 말을 전한다. 첫째 기마병은 “하살롬”이라고 하고 둘째 기마병은 이 표현에서 의문표지를 빼고 “살롬”이라고 한다.<sup>26)</sup> 두 표현 사이에 의미 차이는 없다. 예후의 대답은 두 경우 모두 문자 그대로 똑같다. 그의 대답은 간접적이다.<sup>27)</sup> 질문에 대해 “살롬”이라 답하지 않고 “살롬”이란 단어를 문체 삼아서 의문사를 사용하여 질문함으로써 사실상 부정적으로 답한다.

요람 왕이 전한 “하살롬”은 단순한 인사말로 볼 수 있다.<sup>28)</sup> 위의 2.3.과 2.4.에서 살펴본 현대어 번역본들 가운데 ‘평화’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번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번역도 있다.<sup>29)</sup> ‘평화’가 포함된 번역은 예후가 평화로

25) M. Cogan and H. Tadmor, *II King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YB 11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8), 108. 『새번역』의 “좋은 소식이 었소”는 이런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6) D. J. Wiseman, “Is It Peace? — Covenant and Diplomacy”, *Vetus Testamentum* (1982), 320은 둘째 기마병이 전한 19절의 “살롬”을 질문이 아니라 “평화입니다(It is peace)”라는 긍정적인 진술로 해석한다. 그러나 의문표지가 없다고 해서 의문문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의 각주 1을 보라.

27) 이은영, “직접적인 대답과 간접적인 대답의 기능”, 『한국어학』 20 (2003), 181은 한국어에서 간접적인 대답의 발화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는 “물음의 간접 화행으로 받아들인 경우, 직접적인 대답이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인간관계에 도움을 주지 못해서 예들러 표현해야 하는 경우, 청자가 의도한 새로운 화제를 표현하기 위한 경우”라고 한다. 성서 히브리어도 그다지 다르지 않다. 예후는 일종의 말놀이를 하면서 기마병이 전한 요람의 인사와 요람이 직접 건네는 인사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

28) I. Lande, *Formelhafte Wendungen der Umgangssprache im Alten Testament*, 5에 따르면 여기서 요람은 일반적인 인사를 건네고 있는 것이다.

29) 위에서 다룬 번역본 가운데 이 세 구절의 번역에서 ‘평화(peace, Friede/friedlich, paix)’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번역은 ESV, KJV, NAS, NIV, NRS, EIN, ELB, LB, ZB, NEG, TOB, 『새번역』이고, 그렇지 않은 번역은 NAB, NJB, TNK, BFC, 『개역개정』, 『공동개정』, 『성경』이다.

은 목적으로 오는지 의심하는 요람 왕이 그것에 관해 묻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한편,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지 묻는 인사말로 옹근 번역은 길르앗 라못에서 시리아에 맞서 싸우고 있는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요람 왕이 묻는 것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고 단순히 형식적인 인사말로 이해했을 수도 있다.

요람은 기마병들에게 인사를 전할 때 말을 몰고 오는 부대의 지휘관이 예후라는 사실을 몰랐다.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평화로운 목적으로 오는지, 또는 전장의 상황이 어떤지를 물었을 것 같지는 않다. 요람은 단순히 부대를 몰고 오는 지휘관이 누구인지 확인할 겸 인사를 전한 것이다. 기마병을 보내서 전한 요람 왕의 물음은 단순히 “(하)살롬”이다. 다른 구체적인 내용이 덧붙여져 있지 않다.<sup>30)</sup>

예후는 요람이 전한 인사말에 답하는 대신 ‘너랑 ‘살롬’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기마병에게 자기 뒤를 따르라고 한다.<sup>31)</sup> 요람은 지휘관이 예후 같다는 파수병의 보고를 받고 상황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아하시야와 함께 예후에게 직접 나아간다. 요람이 직접 예후를 만나러 가는 것은 아마 예후를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요람이 예후를 만나자마자 처음 하는 질문은 “하살롬, 예후”이다. 여기서도 역시 요람은 예후에게 일반적인 인사를 건넨 것이다.<sup>32)</sup> 덧붙이는 말은 없다. 이 짧고 간단한 질문에 대해 예후는 수사 의문문으로 답한다. 그는 요람이 인사말로 건넨 “살롬”을 ‘온전함’이라는 어휘적 의미로 사용하여 자신이 온 목적을 에둘러 말한다. 즉, 이 세벨의 잘못된 행동으로 ‘온전함’이 깨어졌다고 주장한다. 요람은 그제서야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하시야에게 소리 질러 알리지만 결국 예후의 화살을 맞고 죽는다.

#### 4.2.3. 열왕기하 9:31

31절에는 예후가 오는 것을 본 이세벨이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 위의

30) 삼상 16:4에 나오는 “שלום באך”와 왕상 2:13에 나오는 “שלום באך”라는 표현은 상대방이 온 목적이 궁금해서 묻는 말이다. 예후가 오는 목적이 궁금했다면 아마도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 것이다.

31) D. J. Wiseman, “Is It Peace? — Covenant and Diplomacy”, 320은 “하살롬”이 일상적인 인사말을 넘어서 평화적인 협정을 제안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예후의 대답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질문에 나오는 “살롬”과 대답에 사용된 “살롬”이 같은 기능을 한다고 가정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예후는 단순한 인사말로 사용된 “살롬”을 활용하여 비꼬면서 대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2) Ibid., 321은 여기서도 “하살롬”을 단순한 인사말이라 생각하지 않고 “협상에 대한 진지한 바람”을 나타낸다고 본다. 그러나 요람에게 그런 바람이 있었다면 그것을 이처럼 짤막한 표현을 써서 암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더구나 요람이 예후의 의도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2.3.에서 살펴보았듯이 KJV, NJB, ZB 등은 여기서 “시므리”를 호격이 아니라 “살롬”을 누리는 주체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비록 비꼬는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이세벨이 예후에게 인사말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sup>33)</sup> 이세벨은 예후에게 “하살롬”이라고 한 다음 그를 가리켜 “시므리, 제 주인을 죽인 자!”라고 하는 것이다. 시므리가 엘라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 7일 만에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처럼(왕상 16:9-20) 예후의 반란도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예후는 이세벨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누가 자기편에 서서 도움을 주겠느냐고 소리 지르며 다그쳐 묻는다.<sup>34)</sup>

이런 상황에서 “하살롬”은 ‘온전함’이나 ‘평화’를 뜻하는 어휘적 의미보다는 화용론적 기능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물론 이 질문을 예후가 ‘살롬’을 파괴하는 반역 행위를 한 것을 비꼬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sup>35)</sup> 그러나 형식적 인사도 문맥이나 억양에 따라 비꼬는 말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세벨은 예후를 “시므리”라고 부름으로써 예후를 깎아내리고 있다. 여기서 “하살롬”을 일반적인 인사말로 보아도 이세벨이 예후를 조롱하는 의미는 그대로 남아 있다.

#### 4.2.4. 번역

열왕기하 9장 본문을 문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하살롬”의 다양한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 있었다. 예를 들어, 올리언(S. Olyan)은 열왕기하 9장에서 반복되는 “하살롬”이라는 표현 안에 ‘살롬’을 파괴한 이세벨을 비난하는 목소리와 깨어진 ‘살롬’을 회복하는 사람으로서 예후의 이미지가 드러난다고 분석한다.<sup>36)</sup> 그와 달리 아이젠바이스(W. Eisenbeis)는 ‘살롬’이라는 주제어를 사용함으로써 신명기 역사가가 아합 가문 사람들을 평화로운 사람들로 묘사하며 예후는 잔인한 살인자로 그리고 있다고 한다.<sup>37)</sup> 그러나 이러한 문학적 분석의 결과를 번역에까지 반영할 필요는 없다. 이 장에 나오는 “하살롬”은 ‘온전함’이나 ‘평화’의 의미를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으면

33) I. Lande, *Formelhafte Wendungen der Umgangssprache im Alten Testament*, 7-8은 “시므리”를 호격으로 보는 견해와 “살롬”의 주어로 보는 견해를 설명하면서, 이세벨이 치장하고 왕을 맞이하듯 점잖게 비웃는 인사를 하는 상황에서는 “시므리”를 호격으로 보고 “하살롬”을 인사말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본다.

34) 두 번 반복된 의문사가 급박한 상황을 잘 표현한다.

35) S. Olyan, “*Hāsālôm: Some Literary Considerations of 2 Kings 9*”, *Catholic Biblical Quarterly* 46 (1984), 668.

36) *Ibid.*, 652-668.

37) W. Eisenbeis, *Die Wurzel שלום im Alten Testament*, 110.

서 인사말로 옮기는 것이 자연스럽다.

열왕기하 9장에 나오는 “하살롬”을 『개역개정』이 한결같이 “평안하나”로 번역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개역개정』은 문맥에 관계없이 “하살롬”을 모두 인사말로 보고 한국어의 일반적인 인사말로 번역한다. 한국어에서 오늘날 가장 흔하게 쓰이는 인사말은 ‘안녕(安寧)’을 포함하는 표현이다.<sup>38)</sup> ‘안녕하십니까?’나 ‘안녕하세요?’가 ‘평안하십니까?’나 ‘평안하세요?’보다는 훨씬 자주 사용되며 친구 사이에서 흔히 ‘안녕!’이라고는 하지만 ‘평안!’이라고는 잘 하지 않는다.<sup>39)</sup> 따라서 번역에서는 『개역개정』이 사용한 ‘평안하다’보다는 ‘안녕하다’를 활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국어 인사말 ‘안녕하세요’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처음 할 수 있는 인사말이다. 이 인사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로 대답할 수도 있고 ‘네’라고 감탄사를 사용해서 대답할 수도 있고 대답을 얼버무릴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히브리어 ‘살롬’도 비슷한 특성을 갖는다.<sup>40)</sup> 따라서 이러한 인사말에 나오는 “살롬”을 번역할 때 일부 서양어 번역본이나 『새번역』처럼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

11절의 “하살롬”은 얼마 전에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나는 상황이고 대답을 기대하는 인사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서 오시오’ 등의 표현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안녕하다’를 살려 ‘안녕하시오’로 옮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안녕하시오’라는 표현은 뒤따라 나오는 질문 앞에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인사말로 읽을 수 있다. 18, 19, 22절에서는 요람이 자기 부하에게 인사를 전하거나 직접 인사하는 장면이므로 ‘안녕하시오’ 등의 표현으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러면 예후의 대답은 18, 19절에서는 ‘너랑 안녕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기수를 돌려 내 뒤로 오너라’가 될 것이고 22절에서는 “안녕하시오”가 뭐니까? 임금님의 어머니 이세벨이 음란한 일과 마술을 해 대

38) 신호철, “한글 고전 작품 속에 나타난 인사말 연구: 식사 관련 인사말과 두루 쓰임 인사말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56 (2020), 110-111에서는 한글 고전 소설 작품에서 ‘평안(平安)’이 ‘두루 쓰임 인사말’로 쓰였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더 나아가 ‘평안’이 ‘안녕’보다 높은 등급으로 사용되는 것 같다고 한다. 그러나 최현배, “인사하는 말”, 『한글』 95 (1946), 108은 ‘안녕’을 ‘평안’보다 높은 등급으로 분류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런 구분을 “쓸데없는 인공적 구별”이라고 한다.

39)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편한 사이에서,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정답게 하는 인사말”로 쓰이는 ‘안녕’을 감탄사로 분류하지만 ‘평안’에 관해서는 감탄사의 용례를 언급하지 않는다.

40) I. Lande, *Formelhafte Wendungen der Umgangssprache im Alten Testament*, 5는 안부를 묻는 히브리어 표현 ‘살롬’이 질문의 성격을 잃어버렸다는 점을 지적하며 영어의 “How do you do?”에 대해 “Very well, thank you.”라는 상투적인 표현으로 답할 수도 있고, “How do you do?”라고 질문을 반복함으로써 답할 수도 있고, 모호하게 중얼거림으로써 답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고 있는데요’가 될 것이다. 이런 번역은 일상적인 인사를 예후가 비꼬아 대답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31절에서 이세벨이 예후에게 하는 인사 역시 ‘안녕하시오, 시므리, 제 주인을 죽인 자’로 할 수 있다. 뒤따라 나오는 표현이 예후를 비난하면서 조롱하는 표현이므로 이세벨이 ‘안녕하시오’라는 일상적인 인사를 나름의 방식으로 뒤틀어 말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 5. 맺음말

열왕기하 9장에 다섯 번 나오는 “하살롬”은 판정 의문문의 형태를 띤 인사말이다. “하살롬”이라는 질문에 대해 예후는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대답과는 다른 형태의 반응을 보인다. 예후의 이런 반응은 “하살롬”이 특별한 기능을 해서라기보다는 반란을 마음먹고 행동으로 옮기는 예후의 단호한 태도와 더 깊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대화의 상황은 다르더라도 열왕기하 9장의 “하살롬”은 모두 일상적인 인사말로 볼 수 있다. 문학적으로 볼 때에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지만 대화의 상황을 봐도 그렇고 다른 내용이 덧붙여지지 않은 점을 봐도 “하살롬”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되는 인사말이다. 따라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에는 ‘안녕하다’와 같이 흔히 활용되는 인사말을 이용해서 옮기는 것이 좋다.

### <주제어>(Keywords)

열왕기하 9장, 판정 의문문, 인사말, 하살롬, 살롬.

2 Kings 9, polar questions, greetings, *hāšālôm*, *šālôm*.

(투고 일자: 2021년 1월 29일, 심사 일자: 2021년 2월 19일, 게재 확정 일자: 2021년 4월 17일)

## &lt;참고문헌&gt;(References)

- 남기심, 고영근, 『표준 국어문법론』, 제4판, 서울: 박이정, 2014.
- 신호철, “한글 고전 작품 속에 나타난 인사말 연구: 식사 관련 인사말과 두루 쓰임 인사말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56 (2020), 99-119.
- 이은영, “직접적인 대답과 간접적인 대답의 기능”, 『한국어학』 20 (2003), 175-190.
- 이필영, “국어의 응답 표현에 대한 연구”, 『텍스트언어학』 6 (1999), 71-105.
- 장경희, “관정 질문에 대한 긍정과 부정”, 『한국어 의미학』 7 (2000), 149-174.
- 최현배, “인사하는 말”, 『한글』 95 (1946), 107-114.
- Cogan, M. and Tadmor, H., *II King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YB 11,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8.
- Eisenbeis, W., *Die Wurzel שלום im Alten Testament*, BZAW 113, Berlin: de Gruyter, 1969.
- GKC = Gesenius, W., *Gesenius' Hebrew Grammar*, E. Kautzsch, ed., A. E. Cowley, trans., 2nd ed., Oxford: Clarendon, 1910.
- HALOT = Koehler, L. and Baumgartner, W., eds.,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M. E. J. Richardson, trans. and ed., Study edition, Leiden: Brill, 2001.
- Hatch, E. and Redpath, H. A.,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and Other Greek Versions of the Old Testament*, 2nd ed., Grand Rapids: Baker, 1998.
- Hawley, L., “Linguistic Markers of Polar Interrogatives in Biblical Hebrew”, *Hebrew Studies* 56 (2015), 7-22.
- Joüon, P., *Grammaire de l'Hébreu biblique*,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96.
- Kim, D.-H., “אֵל and the Biblical Hebrew Negative Response”, *Vetus Testamentum* 68 (2018), 402-414.
- Kim, D.-H., “אֵל as ‘Yes’ and אֵי as ‘No’”, *Vetus Testamentum* 70 (2020), 361-368.
- Kim, Y.-k., “Responses to Polar Questions in Biblical Hebrew”, *Revue biblique* 126 (2019), 344-359.
- König, E. and Siemund, P., “Speech Act Distinctions in Grammar”, T. Shopen,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2nd ed., vol. 1, *Clause Structure*,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276-324.
- Lande, I., *Formelhafte Wendungen der Umgangssprache im Alten Testament*, Leiden: Brill, 1949.
- Miller, C. L., “Linguistics”, B. T. Arnold and H. G. M. Williamson, eds.,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Historical Book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5, 657-669.

Mitchell, H. G., “The Omission of the Interrogative Particle”, R. F. Harper, F. Brown, and G. F. Moore, eds., *Old Testament and Semitic Studies in Memory of William Rainey Harper*, vol. 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08, 115-129.

Olyan, S., “*Hāšālôm*: Some Literary Considerations of 2 Kings 9”, *Catholic Biblical Quarterly* 46 (1984), 652-668.

*TDOT* = Botterweck, G. J. and Ringgren, H., et al.,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T. Willis, et al., trans., 16 vols., Grand Rapids: Eerdmans, 1974-2018.

Van der Merwe, C. H. J., Naudé, J. A., and Kroeze, J. H., *A Biblical Hebrew Reference Grammar*, 2nd ed., London: T&T Clark, 2017.

Waltke, B. K. and O'Connor, M.,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Wiseman, D. J., “Is It Peace? — Covenant and Diplomacy”, *Vetus Testamentum* (1982), 311-326.

&lt;Abstract&gt;

***Hăšālôm* in 2 Kings 9**

Yoo-ki Kim

(Seoul Women's University)

In the story of Jehu's rebellion in 2 Kings 9, the question *hăšālôm* appears five times. The speakers are Jehu's fellow commander (v. 11), the first (v. 18) and second (v. 19) horsemen sent by Joram, Joram himself (v. 21), and Jezebel (v. 31), while the addressee is Jehu in all these cases. The Septuagint renders *hăšālôm* in 2 Kings 9 consistently as an interrogative particle εἰ and εἰρήνη ('peace'). The Vulgate also employs the words *pax* (peace) and *pacatus* (peaceful) in four of the five cases. Yet the Latin version is not as literal as the Greek in its translation of the expression. Some modern translations use words meaning *peace*, either consistently or partly, while others resort to a greeting formula.

In its form, *hăšālôm* is a typical polar question. A speaker can utter this short question simply to greet the addressee or ask about a third party's wellbeing by adding a prepositional phrase which points to the third party. As with other polar questions in Biblical Hebrew, an echo system language, the addressee generally responds with *šālôm*, the first word of the question, to answer the question in the affirmative. The negative answer *lō'* expected in other polar questions is not found for *hăšālôm* in the Old Testament. Probably, the expression was generally not taken as a serious question but a greeting formula.

In 2 Kings 9, Jehu never answers *hăšālôm* questions with *šālôm*. He either does not respond to the question (vv. 11, 31) or responds in an uncooperative manner (vv. 18, 19, 22). At any rate, the five occurrences of *hăšālôm* directed to Jehu are not real questions about peace but general greetings. Therefore, it is best to render *hăšālôm* as a greeting in the target language, such as *annyeong-* in Korean.